

[기획] >> 4면
이번 학기 수업방식

[기획] >> 5면
김인철 총장 공약분석

[사회] >> 8면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학술] >> 9면
언론중재법, 논란과 나아갈 방향



코로나19 장기화, 학생을 위한 선제적 대처는?

교육부에서 대면 수업 확대 방침을 내림에 따라 대학 대면 수업이 확대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불안과 일상으로의 복귀 사이에서 수업방식 찬반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이어질 우리학교 수업방식의 전망을 알아보자.

▶4면에서 계속

글·사진 정나윤 기자 02imyun@hufs.ac.kr

반병률 우리학교 사학과 교수, 홍범도 장군 촬영 영상 최초로 발굴·기증해

지난달 17일 반병률 우리학교 사학과 교수(이하 반 교수)는 홍범도 장군(이하 홍 장군)의 영상자료를 최초로 발굴해 독립기념관에 기증했다. 그는 홍범도일지 중 대회 개막식에 참여해 자기를 치켜올리면서 사진을 찍었다는 짧은 문헌을 보고 영상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연구를 시작했다. 반 교수는 노력 끝에 2018년 7월 러시아 국립 사진·영상물 보관소에서 홍장군의 영상을 발굴했다. 이후 이를 독립기념관에 기증해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독립기념관에서 강연 중인 반병률 교수(출처: 오마이뉴스)

막을 촬영한 영상이다. 영상속 우리나라과견인은 공식파견 52명과 비공식 인원 4명을 더한 56명으로 확인됐다. 홍 장군 외 △김규식△여운형△최진동 장군 등 신원이 확인 가능한 독립운동가 10명이 찍혔으며 나머지 46명은 사진과 대조해 찾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영상을 통해 기존에 확인되지 않거나 밝혀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 교수는 “홍범도 장군과 독립운동에 대한 자료가 많이 해소됐다”며 이번 영상이 △독립운동가 연구△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복 연구△해방운동 및 대회 연구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정제된 사진과 문헌이 대부분이었던 독립운동역사자료에 귀중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 교수는 “교수를 퇴임하기 전 우리학교 소속으로 큰 공을 세울 수 있어 좋았다”며 “이 영상을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독립운동가의 노력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한다”는 당부 의 말을 남겼다.

양채은 기자 03chaeun@hufs.ac.kr

우리학교 수강신청 방식 변경돼

우리학교는 이번 학기부터 수강신청변경 기간에 한해 ‘취소-시간차 수강신청제’를 도입한다. 취소-시간차수강신청제는 강의 매대 방지를 위해 강의를 취소한 시점부터 취소로 발생한 여석을 신청하는 시점 사이에 시차를 두는 방식이다. 학생에게 취소된 여석 수와 수강신청 가능한 여석을 미리 공지해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공지된 시각에 해당 여석을 신청할 수 있다.

수강신청변경 기간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이번 달 1일부터 7일까지 총 5일이다. 이번 취소-시간차 수강신청제는 수강신청변경 기간 1일에서 4일차와 마지막 날인 5일차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1일에서 4일차의 경우 10시부터 13시 이전에 취소된 좌석은 당일 13시에 여석이 발생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3시부터 16시 사이에 취소된 좌석은 다음날 10시에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5일차의 경우 취소 시간대가 10시부터 13시 사이면 같은 날 13시에 여석이 발생한다. 하지만 13시부터 14시 전에 발생한 취소 좌석은 14시에 신청할 수 있고 14시에서

15시 사이 취소 좌석은 15시에 신청이 가능하다. 15시 이후에 취소한 좌석에 대한 여석 제공은 없다.

우리학교 정보지원처에선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과목을 여석 생성 전 미리 취소해 신청가능 학점을 사전에 미리 확보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수강신청 변경 마지막 날 15시부터 16시 사이에 취소되는 좌석은 여석으로 제공되지 않으니 다른 수강생을 위해 15시 전에 취소해야 할 단점도 당부했다. 학과 내부 사정에 따라 수강신청변경 기간 중 학과에서 수강정원을 조정할 경우 수강신청 화면에 안내되는 여석과 여석 발생 시간에 반영되는 실제 여석은 다를 수 있다.

민근혜(아시아·인도어 20)씨는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암암리에 이뤄지는 강의대매가 항상 문제였는데 이번 취소-시간차 수강신청제를 통해 해결될 것 같다”며 “취소-시간차 수강신청제가 처음 실행되는 만큼 학교 측에선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학우들이 원활한 수강신청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봉비 기자 02jbb@hufs.ac.kr

2021년 정기시험 안내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수년간의 개발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자격정보 안내 <http://flex.hufs.ac.kr>

1. 2021년 FLEX 정기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2.25 ~ 03.03	03.28	04.16	04.30
2회	04.29 ~ 05.05	05.30	06.18	07.02
3회	08.05 ~ 08.11	09.05	09.24	10.08
4회	10.21 ~ 10.27	11.21	12.10	12.24

* 원서접수 마감일의 마감시간은 18:00입니다.
* 고사장, 응시 과목에 따라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LEX 듣기·읽기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민간자격이며, 말하기, 쓰기는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응시자격 : 제한없음

3. 평가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1개 언어 선택 응시 (동시에 2개 언어 응시 불가)

4. 원서접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접수 가능
<http://license.korcham.net>

5. 응시료 : 듣기·읽기 42,000원, 말하기 70,000원, 쓰기 70,000원
▶ 접수 수수료 : 1,200원
▶ 수험료 환불규정 : 접수 기간 내 100% 환불 접수마감 이후~시험일 5일전 50%환불, 접수 수수료 환불 불가 시험일 4일전 이후 환불 불가

6. 결과발표

▶ 확인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http://license.korcham.net> (문의) 02-2102-3600
▶ 성적유효기간 : 시험일로부터 2년

7. 참고사항

재학생 IBT FLEX(영어, 중국어) 응시 자격 : IBT 시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FLEX 정기시험(해당 언어)에 응시한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우리학교, 대학역량평가에서 국비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돼

지난달 17일 우리학교는 교육부에서 진행된 3주기 대학역량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우리학교는 교육부에 의해 정월 감축을 권고받지 않으며, 별도의 평가 없이 정부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날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대학 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하고 각 대학에 통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대학 역량 진단은 진단 대상 대학 319개교 중 참여를 신청한 일반대학 161개교와 전문대학 124개교를 합한 28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부는 진단 대상 대학에 별도 평가를 실시해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 18개교를 선정할 바 있으며 해당 대학은 진단 참여가 제한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9년 12월에 발표

된 '2021년 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핵심적인 교육여건 및 성과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 진단 항목은 △교육 성과△교육 여건△대학 운영의 책무성△발전 계획의 성과△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학생 지원이 있다. 이후 진단 결과와 부정·비리 점점을 종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한다. 평가를 받은 대학은 미충족 지표수에 따라 △일반재정지원 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I 유형△재정지원제한대학 II 유형으로 분류된다. 미충족 지표가 3개인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 I 유형으로 선정돼 국가장학금 II 유형과 일반 학자금 대출의 신·편입생 지원이 50% 제한된다. 미충족 지표가 4개 이상이면 모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의 신·편입생 지원이 100% 제한된다. 우리학교는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돼 3년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을 제약 없이 받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2021년 진단 가결과 대상 대학의 약 73%인 233개교가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인하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를 포함한 나머지 52개교는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미선정됐다. 미선정된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기본역량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2021년 진단 가결과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비판 성명을 냈다.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교협 회장단은 가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일관성을 결여한 평가 결과와 관계 부처나 정치권의 과도한 영향

력 행사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에 따르면 교육부와 대교협은 신입생 정원 감축과 같은 대학 구조개혁의 부담을 대학 간 상생과 협업의 정신에 입각해 나누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2021년 진단 가결과는 보고서의 우열로 생긴 근소한 차이로 국비 지원이 제한돼 일부 대학이 큰 부담을 지게 됐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번 결정을 통해 건전하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 대학마저 재정지원제한을 받게 됐고 이는 정부 내 관련 부처나 정치권의 과도한 영향력에 의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대교협은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확대하고 탈락 대학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대학등록금 책정에 대한 자율권의 행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정봉비 기자 02jbb@hufs.ac.kr

양인집 동문, 제 33대 총동문회장 취임해

지난 7월 5일 서울캠퍼스(이하 설캠프) 스마트도서관 휠라아쿠슈네트홀에서 양인집 총동문회 회장(이하 양 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최소 인원만으로 진행됐다. 양 회장은 33대 회장으로 이번 해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동문회를 이끌게 된다.

취임식엔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김종철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종인 23대 총동문회장△양인모 24·25대 총동문회장△민동석 31·32대 총동문회장 등 전 총동문회장과 △박성준 국회의원△조광한 남양주시장△강임준 군산시장△안승남 구리시

장 등 각계각층의 동문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사장 환영사 및 총장 인사말△김종인 전 총동문회장 격려사△민동석 전 임 총동문회장 이임사△양인집 총동문회장 취임사△총동문회기 전달식△신문 축사△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취임사에서 양 회장은 재정이 건강한 동문회를 만들고 동문 네트워크 정보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우리학교 총동문회장 취임식(출처: 총동문회 홈페이지)

밝혔다. 이를 위해 동문회 재정 흑자 전환과 동문주소득 갱신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 포부를 내세웠다. 더불어 총동문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출마 당시에도 "우리학교 재학생은 4년을 보내지만 동문은 50년 이상을 살아간다"

며 동문회의 노력과 힘에 대해 역설했다. 양 회장은 "총동문회는 단순 친목 단체를 넘어서 학교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책임조직이기도 하다"며 "세계 수준의 융복합 선도대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문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 회장은 우리학교 일본어과를 졸업 후 △쌍용화재해상보험 사장△진로재팬 사장△하이트진로 해외사업 총괄사장을 거쳐 현재 어니컴 회장으로 역임 중이다.

양채은 기자 03chaeun@hufs.ac.kr

우리학교 장모네 EU 센터,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와 공동 세미나 개최해

지난달 17일 우리학교 장모네 EU 센터가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11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와 법적 그리고 국제협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세미나에 앞서 김시홍 우리학교 장모네 EU 센터 소장(이하 김 소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파리기후협정 탈퇴로 인해 국가 공조에서의 위기가 일었지만 바이든 정부의 출범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며 "유럽연합(EU)은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선언을 이끌고 있으며 동아시아 역시 이에 부응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번 세미나의 국제적 의의를 밝혔다. 또한 김 소장은 해당 세미나에 대해 기후변화와 국제협력이란 주제를 갖고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며 향후 전망을 추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를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유럽연합이 여러 지역과 공조하려는 노력△탄소 경제정책의 메커니즘 분석△환경 범죄의 원인과 대처△인도의 기후 변화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문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이뤄졌다. 세미나는 총 네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첫 번째 세션은 연세대학교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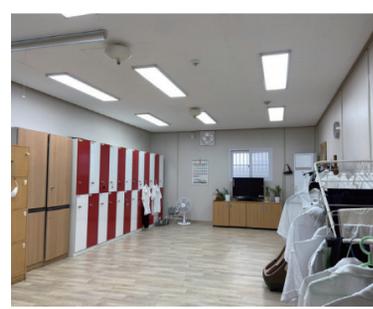
학전문대학교 박덕영 교수가 '탄소 중립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의 대응 시나리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했다. 두 번째로 서보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환경 범죄 처벌의 문제와 국제동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고 세 번째로 김찬완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가 '인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에 관한 주제로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김 소장이 '유럽연합의 기후 행동과 국제협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세미나에 참가한 한 연구자는 "최근 들어 악화된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해 전 지구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장모네 EU 센터는 우수 대학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전문 지식과 전문성을 축적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다. 이는 20세기 중반에 유럽 통합 과정을 시도했던 프랑스 경제학자이자 외교관인 장모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 우리나라에선 우리학교를 포함한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총 다섯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봉비 기자 02jbb@hufs.ac.kr

우리학교 행정지원처, 급식노동자 위한 휴게시설 개편해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프) 행정지원처가 인문과학관과 교수회관 식당 내 급식노동자 휴게시설을 개편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휴게공간을 개축해 7월 말 완공됐다. 설캠프 인문과학관엔 식당 뒤편 작은 가건물을 건설했고 교수회관 식당에도 새로운 휴게시설을 설치했다.



▲설캠프 인문과학관 학생식당 뒤 여자 휴게시설

학교 측은 설캠프 내 기존 휴게시설에 △남녀휴게실 혼용△수용인원 부족△시설 노후 등의 문제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공사를 통해 △남녀휴게실 분리△냉난방 시설 정비△넉넉한 사물함△발 마사지기 구비 등 쾌적한 환경을 건설해 조리사와 영양사를 포함한 급식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려 노력했다. 또한 최대 30명까지 수용 가능한 넓은 공간으로 확장에 조리사를

모두 수용하고 남을 만큼의 크기로 기존의 불편을 해결했다. 이설캠프 인문과학관 학생식당 영양사는 "잠깐 쉬더라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휴게시설 안 샤워실 설치로 번거로움을 줄이고 위생도 신경 쓸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 경숙 인문과학관 학생식당 조리사는 "그전에 시설이 혼잡해 짐을 정리할 곳이 부족했는데 휴게시설이 넓어져 쾌적해졌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근로 의욕이 고취됐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생활협동조합은 식당 내 휴게시설 개편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기존 시설이 노후해 개편 논의를 시도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부재한 상태다.

양채은 기자 03chaeun@hufs.ac.kr

내일을 희망으로 만드는 기술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전세계에 친환경 설비를 갖춘 공장을 짓는 세아상역-

친환경 설비와 공정을 통한 ESG경영으로
세아상역이 더 좋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글로벌 No.1 섬유 의류 수출 기업
SAE-A TRADING

GLOBAL SAE-A

베일에 싸인 장학금 수혜자 선발, 공정함을 되찾기 위해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지속되며 학비 부담과 생계유지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조교 장학금과 학과(부)장특별장학금 등의 제도를 통해 학생 등록금 부담

을 줄여왔다. 이에 우리학교 내 △조교 및 수직생 선발 과정△학과(부)장특별 장학금 선발 기준△공정한 대상자 선발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 보자.

◆가려진 조교 및 수직생 선발 과정

현재 양캠퍼스(이하 양캠)에선 △면접△어학능력△자기소개서△컴퓨터활용능력△학업성적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조교 및 수직생을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과에서 조교 및 수직생 선발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아 투명성이 저해된단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국제금융학과△통계학과△화학학과△환경학과의 조교 및 수직생 선발 과정에서 관련 공지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또한 4개 학과 모두 면접이나 학업성적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학과장이 조교 및 수직생을 선발했다단 사실이 밝혀졌다. 국제금융학과와 경우 학과 조교 정원이 2명 이하이다. 이에 국제금융학과 재학생 A 씨는 “조교로 필요한 인원이 소수인 만큼 학과장의 권한으로 조교가 선발된 것 같다”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조교를 선발하는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환경학과에선 지난해 2학기를 제외하곤 최근 3년간 조교 선발에 대한 공지가 없었다. 화학과 재학생 B 씨는 “교수님과 친분이 있어야 조교로 선발된단 뒷말을 들었다”며 “근로조교 장학금을 받는 만큼 선발 기준의 투명성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글캠 교직원 C 씨는 “학과마다 성적 장학금 기준과 선발 방식이 다르듯 학과 내부의 조교 선발 과정도 알 수 없다”며 각각 학과장에게 조교 및 수직생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선발 방식에 대한 공지를 강요하긴 어렵단 입장을 밝혔다.

관련 공지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1.9%의 학생은 ‘본적이 없다’ △33.3%는 ‘본적이 있다’ △14.8%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불공정함을 느낀 학생은 전체 학생의 51.9%로 나타났다. 또한 장학금 수혜자 선발 기준에 관해선 ‘기준이 통일되어야 한다’가 68.5%로 가장 높

선택과 달리 글캠에선 학과(부)장특별장학금 대상자를 각 학과 조교 및 수직생으로 우선한 뒤 나머지 금액을 성적장학금으로 확대해 분배하고 있다.

◆공정한 수혜자 선발을 위해선

외대학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정한 학과(부)장특별장학금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7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가정 사정상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이 52.7%로 잇따랐다. 설캠 교직원 F 씨는 “모든 학과의 최소 장학금 수혜 기준은 동일하지만 우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선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장학제도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설캠 총학생회 ‘외대에게’는 “모든 학과에선 공통된 서식을 갖춘 서류와 행정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가 지표 항목에 대한 점수가 부재하거나 공개돼 있지 않은 점에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구성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교 선발 과정에 관해 글캠 교직원 C 씨는 “특정 학과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내부 회의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선발 과정에 대한 공지를 하는 등 공정한 기회를 줄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전했다. 글캠 총학생회 ‘온(ON)’ 또한 “모든 학과의 조교 선발 과정과 공지 유무를 조사해 피해를 받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2년간 지속되며 늘어난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장학금에 관한 관심이 더욱 증가했다.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장학제도인 만큼 공정한 선발 기준과 과정이 중시되고 있다. 양캠 모두 더 나은 장학금 수혜자 선발 절차에 대한 마련을 촉구해야 할 때다.

서울캠퍼스 성적장학금 제도 개편 및 학과(부)장특별장학금 신설 안내

우리 대학은 성적 일변도의 장학금 선발 기준을 보완하고 보다 많은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장학제도를 개편·운영할 예정이오니, 장학금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시기 : 2021학년도 2학기부터

2. 주요 개편내용

가. 성적장학금 제도가 일부 개편됩니다.

- 성적장학금 종류가 기존 3개(총장, 학장, 학과장)에서 2개(총장, 학장)로 조정됩니다.
- 학과별 성적(학장)장학금 선발 인원이 다소 늘어납니다.

나. 학과(부)장특별장학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 기존 공로장학금과 성적(학과장)장학금을 통합한 새로운 장학금 제도가 마련됩니다.
- 학업성취도 이외에 소득 수준, 학과 기여도 등 학과(부) 자체의 다양한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매 학기 기존 공로장학생 대비 약 2배의 인원에게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3. 신청방법

가. 성적장학금(총장, 학장) : 기존과 동일(별도 신청없이 학과에서 직전학기 성적 기준으로 선발)

나. 학과(부)장특별장학금

1) 신청대상 : 직전학기 12학점 평점 2.0 이상

2) 신청방법

- 제출서류 : 학과(부)장특별장학금 신청서(장학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 제출장소 : 각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 제출시기 : 학기 초, 각 학과(부)별 자체 공지 참조

※주 의※

대리수령 절대불가 : 장학금 대리수령(다른 학생의 이름을 빌려 수령하는 경우)은 **학생 징계사형**으로 적발 시 **실제 수령자 및 이름을 빌려준 대리수령자 모두 징계 대상**이 되며 해당 장학금액 **전액 환수**함

▲설캠 성적장학금 개편 및 학과(부)장특별장학금 신설 공지

은 비율을 차지했고 ‘학과 별 상이한 기준을 택해도 괜찮다’가 31.5%로 잇따랐다. 우리학교 재학생 D 씨는 “지원 대상자가 학부 자체 기준이라고 명시돼 있다 보니 신청 기간에 혼란을 겪었다”며 모호한 기준보단 정확하고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단 생각을 전했다. 반면 재학생 E 씨는 “학과 별 △교육과정△정원△인재상△수업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밝혀준다면 학과 자체 기준을 적용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설캠에선 학과(부)장특별장학금 대상자를 △소득 수준△학과 기여도△학업 성적 중 해당 학과에서 가장 중시하는 기준으로 선발한다. 하지만 일부 학과에선 학과(부)장특별장학금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밝히지 않아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 학부 자체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한 학과는 △국제통상학과△국제학과△노어과△독일어과△베트남어과△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프랑스어학과△한국어교육과가 있다. 설캠 교직원 F 씨는 “학과(부)장특별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할 때 성적이란 기준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학생을 뽑으려 한다”며 학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학과장이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투명하지 않은 학과(부)장 특별장학금 선발 기준

학과장특별장학금 선발 기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이번 해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선 성적장학금 일부가 개편되고 기존 공로 장학금과 성적장학금을 통합한 학과(부)장특별장학금이 신설됐다. △총장△학장△학과장으로 분류됐던 기존 성적장학금에서 학과장 장학금이 제외되고 학과(부)장특별장학금으로 개편된 것이다. 학과(부)장특별장학금은 △소득 수준△학과 기여도△학업성적 등 학부 자체의 선발 기준을 적용해 대상자를 선발하는 장학금이다. 기준이 명시된 성적장학금과 달리 학과(부)장특별장학금은 학부 자체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하기에 기준이 공지되지 않을 경우 불공정할 수 있단 우려가 지속적으로 들려왔다.

외대학보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총 5일간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학과(부)장특별장학금 대상자 선발 기준에

코로나19 장기화, 학생을 위한 선제적 대처는?

지난 7월 우리학교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이번 학기 수업방식을 발표했다. 발표된 공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이하로 내려갈 경우 수강정원이 40명 이하인 수업은 대면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이하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지난 학기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학교 측이 발표한 수업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번 학기 수업방식 △학내구성원의 다양한 입장 △우리학교 수업방식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 학기 대학 수업방식

지난 7월 23일 우리학교는 코로나19 상황 속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학습 효과 제고를 위한 이번 학기 수업방식을 발표했다. 우리학교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일 경우에만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다. 3단계 이하인 경우 수강정원이 40명 이하인 모든 수업은 대면으로 운영된다. 지난 학기까지 운영됐던 미러링 수업방식은 수업 지연 및 학생 혼란을 막기 위해 최종 폐지됐다. 성적 평가방식 또한 변화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1학기부터 절대평가 방식으로 성적을 평가했지만 이번 학기부터 상대평가로 평가한다.

이번 학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며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번 달 22일까지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윤병호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학사종합지원센터 팀장(이하 윤 팀장)은 “타대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학기 수업방식을 결정했으며 학부 수업방식 공지는 정부 방역 지침 발표에 따라 이뤄진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이후의 수업 공지에 대해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학생 및 교수진이 학교 수업방식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타대학에선 교육부 지침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이번 학기 전면 대면 수업 방침을 밝혔던 서울대학교는 이를 철회하고 개강 후 한 달간 비대면 수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실험 실습과 실기 등 반드시 대면 수업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인 경우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일 땐 수강정원을 기준으로 완화된 △대면△비대면△혼합 기준을 적용한다. 경희대학교에선 전공 수업의 수강정원 30명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경우 대면 수업을 허용했으며 교양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전면 비대면 수업을 결정했다.



▲팅 빈 서울캠퍼스 교정

◆수업방식에 대한 찬반 논의

지난달 18일 설캠 총학생회 ‘외대에게’ (이하 설캠 총학)는 학교의 수업 방식 공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은 정상적인 대면 수업이 아니다”며 “학교 측에서 상대평가 방식을 주장하며 내세운 전체 대면 시험은 교내 시설 부족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설캠 총학은 심각한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불안정한 백신 보급 현황을 고려한 장기적인 대책을 학교에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온(ON)’ (이하 글캠 총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인 경우에도 전면 비대면 수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절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란 입장을 밝히며 설캠 총학과 함께 연대 서명을 진행했다. 윤 팀장은 이번 학기 수업방식에 대해 “대면 활동을 확대하란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결정이었다”며 “△강의실 배정△스타 대학 사례△학생의 안전△학습 효과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전했다. 성적 평가방식에 대해서 “계속된 절대평가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져 이번 학기에 상대평가로 변경했다”며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40%의 학부 강의의 경우에도 절대평가로의 변경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외대학보는 이번 달 22일부터 26일까지 총 5일간 우리학교 학생 102명을 대상으로 이번 학기 수업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번 학기 수업방식에 찬성하는 학생은 28.4%, 반대하는 학생은 71.6%로 나타났다. 수업방식에 찬성하는 이유론 ‘교수 및 동료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싶어서’가 65.5%로 1위를 차지했다. 그 외론 △ ‘질 좋은 수업을 수강하고 싶어서’ △ ‘동아리, 학생 자치 활동 등 학교생활을 하고 싶어서’ △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서’가 각각 △ 62.1%△55.2%△51.7%를 기록했다. 반대하는 이유론 ‘교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서’가 98.6%로 가장 높았다. 그 외론 ‘통학 소요 시간 및 주거 비용 등이 부담돼서’와 ‘개인 학습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가 각각 60.3%와 28.8%로 나타났다. 박수은(사회·행정 19) 씨는 “델타 변이가 심각한 상황이라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게 조금 우려스럽다”며 “3단계 이하부터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보단 2단계 이하로 기준을 완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앞으로의 수업방식은

지난달 17일 교육부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대면 수업이 가능하단 지침을 발표했다. △실기△실습△실험 수업과 방역이 용이한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 수업이 허용된 것이다. 전 국민의 70% 정도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수업은 더 확대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 지침에 우리학교 학생의 반응은 엇갈렸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대학 대면 수업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학생 37.3%는 찬성, 62.7%는 반대했다. 찬성하는 이유엔 △ ‘코로나19의 종식이 보이지 않아서’ △ ‘대면 수업, 동아리 등 캠퍼스 활동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 ‘비대면 강의 품질 회복을 위해서’ △ ‘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서’가 각각 △84.2%△68.4%△65.8%△21.1% 순으로 드러났다. 반대하는 이유론 △ ‘학교가 방역 지침에 맞춘 대면 수업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것 같아서’ △ ‘델타 변이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서’ △ ‘20대 백신 접종이 제

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 ‘비대면 수업에 만족해서’가 각각 △75%△73.4%△56.3%△35.9%를 기록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20대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01%로 나타났다. △80세 이상△70대△60대의 치명률이 각각 △17.73%△5.24%△1.02%인 것에 비해 20대 치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도 코로나19를 유행성 독감으로 보고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선언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독감 치명률이 0.1%인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는 독감 정도다”고 주장했다. 박서현(자연·생명 19) 씨는 “전 국민의 5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만큼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킨다는 전제하에 대면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면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한 문제도 존재한다. 지난달 25일 발표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질병 발병·사망률 주간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델타 변이가 감염원의 50% 이상을 차지할 때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99%에서 66%로 줄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젊은 층의 코로나19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순 있으나 위·중증 환자로 악화된 경우 치료 기간은 더 길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며 “젊은 층도 코로나19를 가벼운 병으로 여겨서 안 된다”고 전했다. 최근 충청북도 괴산의 한 중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충청도에선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8월에만 학생 158명이 확진됐다. 경상북도 김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21명이 확진되는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 국민이 백신을 접종해도 집단 면역이 어렵단 관측이 나온다. 백신을 맞더라도 대면 수업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해 20대의 백신 기피 현상도 여전히 존재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생들 사이에선 이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단 입장과 아직은 시기상조란 입장이 맞서고 있다. 지난 6월 진행된 학사제도협의회에서 전면 비대면을 고수해왔던 글캠 총학도 대면 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됐던 6월에 비해 현재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상황이 다시 악화됐다. 글캠 총학은 “학생 모두의 의견을 수용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백신 접종 인원 확보와 코로나19 안정화 전까지 모든 학생의 안전을 위해 대면 수업에 보수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설캠 총학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생활권(주거권)이 보장된 학사 운영방식을 요구하는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며 “대학 본부가 안전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이를 구성원에게 공개하기 전까지 무리한 대면 수업 확대를 경계해야 하단 입장이다”고 밝혔다.

대면 수업 확대를 위해선 학생 안전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필수적이다. 현 상황에 맞는 대학의 새로운 수업방식과 방역 지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침표 찍는 김인철 총장의 임기, 지난 8년간의 성과는?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학교 제10대 총장직을 맡은 데 이어 2017년 제11대 총장선거에서 재차 당선했다. 2018년부터 공식적으로 제11대 총장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김 총장은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임기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 총장이 지난 제11대 총장 선거에서 내건 공약을 분석하며 김 총장의 이번 임기를 되돌아보자.

◆11대 총장 재선에 나서기까지

김 총장은 1976년 우리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해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이후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우리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임용된 뒤 교내에선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기획조정처장 △대외부총장 △교무처장을 역임했다. 학교 외부적으로는 △감사원 감사위원 △국가교육개혁회의 위원 △대검찰청 검찰위원 △재정경제부 혁신지원위원 △한국정책학회 회장 등의 직무를 수행했다.

지난 2013년 우리학교 제10대 총장에 취임한 김 총장은 실용주의를 내세운 학교 경영 방침으로 △신뢰구축 성장기반 조성 △교수규모 적정화 및 급여경쟁력 강화 △대학구조개혁평가 A등급 획득 △정부재정지원사업·수익사업 최대 실적 △'특수외국어교육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 등의 성과를 세웠다. 제10대 임기에 이어 제11대 총장직 연임에 도전한 김 총장은 지난 2017년 11월 24일에 열린 교수직선거에서 58%의 지지율을 얻어 제11대 총장직을 역임하게 됐다.

◆김 총장의 공약 돌아보기

김 총장은 제11대 총장 선거에서 △공정한 거버넌스(Fair Governance) △쉽고 단순한 행정시스템(Simple System) △지속가능한 혁신(Sustainable Innovation)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원칙을 이루는 하위 전략으로 △인사·복지·행정 거버넌스 구축 △지속가능한 재정 △창의적 혁신 교육과정과 교육 인프라의 첨단화 △캠퍼스 간 균형발전 · 캠퍼스별 특화성장 △4차산업 대응 플랫폼 구축의 5대 전략을 내세웠다.

김 총장은 다양한 부문에서 공약을 제시했고 임기 동안 다수를 이행했다. 교육·학사 부문에선 통번역센터 홈페이지 개편이 이뤄졌다. 통번역센터 활성화를 위해 통번역업무 수주 및 결제 과정을 간소화한 원스톱 견적내기와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발전을 꾀했다. 또한 튜터링 프로그램과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을 관리하는 교육선진화센터를 설립했다. 전공 관련 부문에선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21세기형 인재를 양성한다 공약을 바탕으로 'Language & AI 트랙'과 'Software & AI 트랙'으로 구성된 AI융합전공이 신설됐다. 더불어 혁신융합전공을 다양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해 학생 주도형 혁신융합전공 개발을 장려했다. 그 결과 학생이 직접 만든 △공공인재전공 △관광경영학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 △프랑스비즈니스전공 △MENA 국제경영전공 등이 개설돼 운영 중이다. 한편 교양 과목에서도 융복합 주제에 대해 다양한 전공의 학생이 참여하는 토론수업을 열겠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2015년 '미네르바인문-읽기와쓰기' 수업을 개설했다. 시대적 사회 요구를 담아낸 교양교육 운영을 확대하겠다 공약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기초 과목을 신설했으며 '△감성△공감△인성△지성을 위한 Lectio' 과목을 통해 교양서적 읽기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복지 부문에선 면학장학금 수혜자 비율을 늘리기 위해 특별장학금 형태인 '20-20 장학금'이 2014년 2학기부터 2016년 2학기까지 지급됐다. 이는 2017

년부터 지급 목적이 비슷한 면학장학금 예산으로 편입됐다. 시설 부문에선 지난해 5월 설캠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스마트도서관'이란 명칭으로 개관됐다. 더불어 구 우리은행 이문동지점 부지에 외부 기숙사 글로벌홀을 신설했다. 또한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교문을 지난해 10월 새단장했다.

진행 중인 공약도 존재했다. 교육·학사 부문에선 플렉스(FLEX) 시험 언어별 전담연구원을 총원화겠다 공약을 세웠다. 그러나 플렉스센터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기존에 존재하던 영어와 중국어 전담 연구원의 임용이 유지됐으나 다른 언어 전담 연구원의 추가 임용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양캠퍼스(이하 양캠)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습체제 기반 조성하는 공약도 진행 중이다. 'RC(Residential College) Program'은 신입생 필수 교양 과목인 'RC영어'와 비교과 프로그램인 'R-EIP(Residential English Immersion Program)'으로 구성돼

이행되지 않은 공약도 있었다. 복지 부문에선 비대면으로 불편사항 및 제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신문고 제도를 도입하겠다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설캠 총학생회 '외대에게'는 "전 총학생회 재임 기간부터 해당 제도 이행을 촉구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설 부문에선 강남 미니캠퍼스와 지하캠퍼스를 개발하겠다 공약이 있었다. 그러나 설캠 건설기획팀 관계자는 강남 미니캠퍼스 건설 건에 대해 "우리 학교 소유의 강남 부지가 도시공원일몰제*에 의해 도시공원 지정이 풀리면서 서울시 측으로부터 보상금이 나와야 하지만 서울시의 예산 부족 문제로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하캠퍼스 건설 건에 대해선 "서울시와 논의를 시도해보았으나 △구성원 반대 △법적 문제 △소유권 문제로 이견이 생겨 집행이 어렵다"고 전했다. 예산 부문에선 당초 우리학교 예산을 이번 해에 약 3,700억 원 수준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실제 이번 해의 우리학교 예산은 약 2,300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예산조정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체의 투자가 줄어 사업을 통한 외연 확장이 어려웠던 탓이 크다"고 밝혔다.

공약 목록		
이행 완료	진행 중	진행되지 않음
<p>[교육·학사] △통번역센터 홈페이지 리뉴얼 △교육선진화센터 설립 △시 융합전공 개설 △혁신융합전공 다양화·내실화 △창의적 인재 양성 CEP 개설 △시대적 사회 요구가 담긴 교양교육 운영 확대</p> <p>[복지] △20-20 장학금</p> <p>[시설] △서울캠퍼스 스마트도서관 신설 △서울캠퍼스 외부 기숙사 글로벌 홀 완공 △글로벌캠퍼스 교문 리모델링</p>	<p>[교육·학사] △FLEX 언어전담별 연구원 총원 △양 캠퍼스 신입생 봄가을학기 학습체제 기반 조성 △FIA 방식으로 학생선택 지도</p> <p>[시설]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증축 △서울캠퍼스 모든 건물에 외부 엘리베이터 부착</p>	<p>[교육·학사] △스마트러닝 환경 구축 △가상현실(VR) 학습자료 개발</p> <p>[복지] △학생 신문고 제도 도입</p> <p>[시설] △강남 미니캠퍼스 개발 △지하캠퍼스 개발</p> <p>[예산] △예산 약 3,700억원까지 확대</p>

▲이행 상태에 따른 김 총장의 공약 목록

있다. R-EIP의 일환으로 기숙사 내에서 진행되는 'FTT(Free Talking Time)'를 개설해 기숙사에서 영어 교육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다만 기존 공약에 따르면 양캠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현재 글캠 내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융합인재대학의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또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을 자율적으로 진행하며 학점을 인정받는 자유학제협정(Free Interdisciplinarity Agreement) 방식을 도입해 학생선택 지도를 하겠다 공약을 내세웠다. 이 제도는 'H-UP 진로탐색학점제(이하 진로탐색학점제)'라는 시범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시설 부문에선 글캠 도서관 증축이 진행 단계에 있다. 지난 4월 우리학교 기획건설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캠 도서관 그린리모델링 및 증축 설계 공모 관련 공고문의 설계지침서에 따르면 도서관 완공예정일은 2024년 4월이다. 설캠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부착하는 계획도 진행 중이다. 설캠 건설기획팀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 문제로 1년에 한 군데씩 공사를 진행 중이다"며 "현재 사회과학관 엘리베이터 공사를 진행 중이고 내년엔 대학원 건물 엘리베이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보다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제11대 총장선거에 나설 당시 김 총장은 "현재까지의 성과와 다양한 경험을 동력으로 우리학교의 새로운 4년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지난 제10대 총장 직무를 수행하며 완수하지 못한 과제를 해결하겠다 포부를 밝혔고 여러 공약이 이행됐다. 우경주(사법·중교 19) 씨는 "도서관이 리모델링되고 흥미로운 교양 과목이 다수 신설돼 공부하는 데 만족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이행되지 않은 공약도 있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

들고 강의가 비대면화 된 것이 큰 원인으로 보인다. 김해인(동유럽·폴란드어 18) 씨는 "코로나19 이후 예산이 크게 줄어 우리학교의 재정력이 악화된 것이 아쉽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해 11월 중에 차기 총장 선거가 진행되므로 김 총장의 실질적인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당초 김 총장의 포부대로 우리학교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선 남아있는 공약들이 이행돼야 한다. 김 총장의 공약 이행 목록이 남은 임기 동안 더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도시공원일몰제: 도시공원계획시점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결정을 해제하는 제도.



어서와 해외는 처음이지

프라하가 나에게 와준 순간 우리들은 만났다

7+1 파견 프로그램을 갈 수 있을지 몰랐다. 해외 파견학생으로 선발됐을 당시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고 해외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쁘기만 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며 비자 발급과 출국이 불투명해지자 학교 측은 취소 권장 메일을 보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난 취소 기간을 놓쳐 한 달 만에 급히 출국 준비를 했다. 그렇게 지난해 9월에 출국을 했고 7개월 간의 외국 생활이 시작됐다.

외국 생활을 하며 터득한 것 중 유용했던 점이 몇 개 있다. 프라하에 갈 우리학교 학생은 체코에서 통용되는 교통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알아보고 국내비자카드와 연결시키길 추천한다. 우버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할인혜택을 위해 자주 가는 마트 고객카드를 만드는 것도 유용하다.

처음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 주변인의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인종과 언어가 달라 소외감이 든 순간도 있었지만 힘이 된 사람도 있었다. 비행기를 놓쳤을 때 도움을 손길을 내민 친구들, 구급차를 부르고 마트에서 술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의사를통을 도와준 여성분, 불 꺼진 식당에서 날 위해 모든 걸 준비해준 사장님 등 모두 고마운 사람들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지에서 부딪히며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 주변인의 도움을 감사히 받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것이다.



동안의 감정을 담은 편지를 썼다.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 부둥켜 안고 운 것이 기억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7+1 해외파견 프로그램을 다녀오기 전까지만 해도 해외생활에 대한 큰 뜻이 없었다. 그러나 프라하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온 뒤 더 많은 사람과 다양한 언어로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이 깊어졌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 뿐이지만 내 발길이 닿는 곳에 족적을 남겨보는 것이 뜻 깊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란 우리학교의 슬로건이 멀게 느껴졌지만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온 지금 해외영업이란 꿈을 꿀 정도로 세계가 가깝게 느껴진다. 짧다면 짧은 프라하에서 보낸 시간들이 앞으로 인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 모른다. 하지만 새로운 내 모습을 발견해준 친구를 다시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글 · 사진 조주현 (영어 · ELLT 16)



영어를 전공하고 있지만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언어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마음에 7+1 파견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하지만 막상 해외에 가니 언어의 장벽이 크게 느껴져 프라하에 도착한지 3개월이 지나야 외국인 친구와 마음을 터놓고 지냈다. 파견 생활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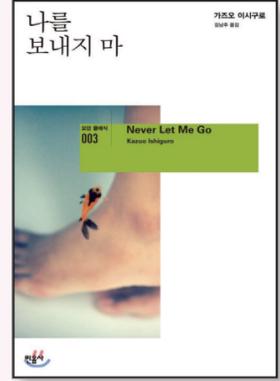
친구와 살짝 취한 채 노래를 들으며 프라하 구시가 북쪽에 위치한 레트나(Letna) 공원을 산책한 일이다. 별거 아닌 일이지만 '내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이렇게 살았을까'란 상상을 하게 해준 밤이었다. 처음부터 이별이 정해진 만남이라 더욱 애뒀했다. 귀국 이틀 전 친구들에게 프라하 시내를 돌아다니며 산 선물과 추억을 되새기며 그



영국

<나를 보내지마>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성찰-



2017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가즈오 이시구로는 이름에서 주는 느낌과 달리 영국인이다. 그는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나 6살이 되던 해 영국 국립해양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하는 아버지를 따라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건너갔다. 일본에서 나간 했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영국에서 보냈기에 가즈오 이시구로 작품 속에서 일본 문학의 영향을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그는 노벨 문학상 수상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영국에서 자랐지만 내 안엔 항상 일본이 있었다"고 전했다. 언제나 영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경계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고민했던 그는 소설 '나를 보내지 마'를 통해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 사이의 경계에 놓인 복제 인간의 이야기를 다뤘다.

소설은 주인공이자 '클론'인 '캐시'의 시점을 통해 진행된다. 그녀는 친구 '루스', '토미'와 함께 헤일섬이란 지역에서 같이 학교를 나고 자란다. 이 학교엔 장기기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클론이 살고 있다. 학교의 설립자인 '에밀리'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일반 사람이며 클론 학생을 교육한다. 그러나 그들을 일반 사람과 다른 존재로 여기고 묘한 혐오감을 느낀다. 클론은 학교를 졸업하고 장기를 기증한 후 회복 중인 클론을 돌보는 간병사로 일하게 된다. 클론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략 5년에서 10년을 간병사로 일한 후 숨이 끊어질 때까지 장기를 하나씩 기증하는 운명에 놓인다.

가즈오 이시구로는 작품을 통해 '어떤 존재가 인간임을 정하는 것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묻는다. 클론은 실존하는 인물의 신체를 본 떠 만들었기에 인간과 육체적인 차이가 없다. 클론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간과 동일하지만 인간은 그들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불과 2세기 전까지만 해도 특정 인종이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노동의 수단으로서 대해졌던 사실을 상기시킨다.

클론의 인생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보인다. 헤일섬 학교의 클론은 자라면서 언젠가 장기기증을 해야 할 단 사실을 어렵게 알아간다. 학교를 졸업한 후엔 간병사가 돼 장기기증을 한 클론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미래를 더 확실하게 담는다. 우리 역시 어렸을 적부터 언젠간 죽는단 사실을 어렵게 알고 있다. 그러다 어른이 되고 타인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겪게 되며 우리 역시 필멸의 존재임을 명확히 깨닫는다. 클론의 삶이 매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은유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삶이 극히 유한한 단 것을 깨달은 스루스스캐시스토미는 어떤 실존적인 선택을 하고 우리는 이러한 소설 속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책을 읽고 가즈오 이시구로가 던지는 인간의 실존적 질문들에 대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정병비 기자 02jbb@hufs.ac.kr

글로벌캠퍼스 설립 41주년 기념 캠퍼스 SSUL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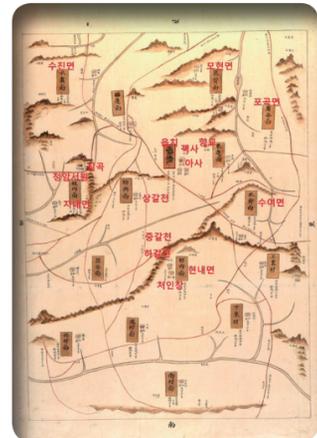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사

① 글로벌캠퍼스 위치, 그것이 알고싶다

왕산 명당설(旺山 明堂說)?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는 1979년부터 20년간 진행된 장기 계획을 통해 지금의 아름답고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갖췄다. 우리학교 제2캠퍼스 설립 추진은 캠퍼스 용인 완전 이전 이란 기본 계획을 전제로 교육 시설 양적 성장과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했다. 기존의 어학과 지역학을 넘어 △공학△예술△의학△인문△자연과학을 신설하는 계획을 통해 종합대학의 면모를 갖추고자 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 조성'을 목표로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우선시했다.

먼저 제2캠퍼스 부지 선정을 진행했다. 종합대학 체제 완성을 위해 우리학교 설립자 김홍배 박사를 비롯한 대학 운영진은 자문을 구하고 전국을 수소문하는 등 고심 끝에 지금의 모현 왕산(旺山)을 발견해 제2캠퍼스 건설 부지로 낙점했다. 지금의 자리가 선정된 데엔 여러 풍수지리적 이유가 있다. 글캠이 자리 잡은 왕산 일대는 예부터 명당(明堂)으로 인정받는 곳이다. 택리지(擇里志)에 따르면 △산세 △분지 △하천의 발원지가 어우러진 용인은 닭이 알을 품는 둥지인 '금계포란(金鷄抱卵)'의 지형이자, 땅의 모양이 거북과 같아 오래도록 세대를



▲용인현지도 조선후기

이어나고 대대로 인물이 많이 나올 지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도 탐낸 땅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중앙계획소안(中央計劃素案)'에 따라 중국과 한반도를 아우르는 대동아권 중심부에 수도를 건설하려 했다. 이때 후포시 세 곳 중 한 곳이 현재 글캠의 위치인 관청마을 일대이기도 했다. 현재 글캠의 자리가 풍수지리적으로 중요한 자리임을 보여준다.

'어진 사람을 사모하다'는 뜻의 모현(慕賢)이란 지명도 1411년 조선 태종이 고려시대 충신인 정몽주의 묘(墓)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소재를 이장하며 붙여진 것이다. 현인(賢人) 문충(文忠)이 잠들어 있는 곳이자 예부터 유능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 풍수적으로 귀히 쓰인 곳이기도 하다. 모현에 자리한 글캠은 계속해서 전통을 이어가며 어진 인품을 갖춘 유능한 세계 인재를 양성하는 배움의 전당 역할을 특목히 해내고 있다.

-기록 및 사진 제공 : 역사관



▲구분관 전경



▲왕산 지역 전경

융합인재대학, 미래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선

융합인재대학(이하 융인대)은 3개의 모듈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학생 스스로 진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던 특징을 가지고 신설된 단과대학이다. 하지만 신설 후 한 학기가 지난 지금, 융인대는 △수강 신청 혼란△

언어 모듈 면접의 공정성 논란△졸업 시 '융합 학사' 제공이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융인대 재학생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융인대의 취지△현 융인대의 문제점△융인대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융인대의 설립 배경

지난해 4월 24일 학교 측은 융합산업대학 학칙개정안을 발표하고 뒤이어 5월 7일 융인대 학칙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존 단과대학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성화 대학 신설이 그 목적이었다. 하지만 융인대 신설에 반발하는 학우 60명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스마트 도서관 앞에서 융인대 학칙 개정안 반대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융인대가 설립된다면 발생할 기존 학과의 △재학생 학습권 침해△정체성 모호△존립 위협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다음날 융인대 개설에 반대하는 학생 대표자는 재학생과 함께 설캠 교무위원회 및 교수협의회 회의 장소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5월 11일 대학평의원회 개최 전에 △대학평의원회 회의실 앞△이사장실△총장실 앞에 대자보를 게재하고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학평의원회는 융인대 학칙개정안 가결을 진행했고 곧바로 이사회까지 통과돼 융인대 학칙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후 우리학교는 이번 해 융인대 신입생을 모집해 141명의 학부생을 두고 있다.

◆융인대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융인대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융인대 재학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은 43.6%△보통인 학생은 15.4%△불만족한 학생은 41%로 드러났다. 불만족한 이유로 '융합 학사에 대한 명확한 설명 부재'를 꼽은 학생이 27.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1학년 1학기 성적과 면접으로 결정되는 커리큘럼' △ '학습의 깊이가 없다'고 느껴짐 △ '이중 전공 불가' △ '독자적인 단과대 학생회 운영 체계 부재'가 각각 △24.2%△24.2%△12.1%△9.1%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융인대는 학생이 5개의 모듈 중 3개를 선택해 진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도록 설정됐다. 외국어 모듈 수료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는 언어능력을 기반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다른 단과대학과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융인대 재학생은 졸업시험이 없고 취업이나 창업에 목표로 할 경우 취업 관련 프로젝트나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Carry&Writing'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융인대의 차별화된 교육에 대해 이후주(융인·21) 씨는 "최근 많은 기업에서 융합 인재를 찾는데 융인대는 융합형 인재 양성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융인대의 교육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융인대 세부언어모듈 선정 과정에서도 잡음이 발생했다. 융인대는 언어 모듈 배정 반영비율을 △면접 20%△성적 70%△RC 보고서 10%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7월 23일 신입생 세부언어 모듈 배정 결과 공식 발표 후 평가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조준형(통번역·아랍어 18) 융인대 학생회장(이하 조 회장)은 융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공통 면접 질문의 부재△상이한 면접 시간

이나 담당 교수진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융인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최 학과장은 "우리학교의 융·복합 대학 특성화 사업이 타 대학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는 이공계열을 중심으로 인문 계열을 융합해 가상현실 속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화여대)의 경우 컴퓨터의학 연계전공을 신설해 차별화된 의·과학 교육을 시행했다. 이화여대의 해당 교과과정은 여러 트랙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이화여대는 이수학점 부담이 적어 부전공과 복수전공 이수 기회가 열려 있다. 최 학과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리학교가 외국어 특성화 대학이기 때문에 언어 능력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사업을 시도해야 한다"며 인문학과 기술을 복합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현재 융인대는 학교로부터 엄청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부다"며 "학교 측에서 학부 내에 제기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또한 융인대란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상황에서 재학생의 목소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구시대적이라고 주장했다.

융인대는 교육 시장과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설립됐다. 그러나 신설 과정에서 학내 재학생과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행한 결과 마찰이 생겼다. 또한 개설된 후엔 학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두고 재학생과의 잡음이 발생했다. 융인대가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학교 특성화 대학 중 하나로 자리잡기 위해선 학내 구성원의 합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융인대의 5개 모듈

한 "학생들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측이 끊임없는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최진영 융인대 학과장(이하 최 학과장)은 "처음 융인대를 신설할 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21세기 교육 환경과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선 필요한 대학이라고 생각했다"며 "융인대는 21세기 미래사회를 선도할 능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와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IT기술 활용 능력이 뛰어난 복합형 인재를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취업 시장의 변화 속에서 학생을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융인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융인대는 졸업 후 융합 학사를 취득할 수 있다. 융합학사는 우리학교의 다른 학과나 학부를 졸업했을 때 얻는 학사와 비교했을 때 다소 생소하다. 김지윤(융인·21) 씨는 "학교 측에서 융합 학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한 적이 없어 학생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다"며 "취득할 학사의 이름을 모호하게 설정하기보다 학생들이 이수했던 모듈에 맞는 학생 맞춤형 학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이 지망한 언어와 다른 언어로 진행된 면접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학생들은 부정확한 면접 진행이 융인대의 교육목표와 학생들의 학습권에 위배된단 불만을 제기했다.

융인대 재학생은 4년 간 총 150학점에 달하는 3개의 모듈을 이수해야 한다. 다른 재학생에 비해 많은 양의 과목을 소화하기에 수강 신청 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외대학보 설문조사에서 '이번 학기 수강 신청에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예'라고 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3%에 달했다. 수강 신청이 어려웠던 이유로 '어떤 과목들을 수강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가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수강해야 할 전공 필수 과목이 많았다', '개설된 강의의 수가 너무 적었다'가 각각 30%, 25%로 뒤를 이었다. 실제 융인대는 지난 학기 수강신청 바로 전 주에서야 졸업 학점 확인안을 발표해 신입생에게 한차례 혼란을 준 적 있다. 배정은(융인·21) 씨는 "필수 강의만큼은 △강의 수△수강 시간△정원 면에서 여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다음 학기 수강신청의 개선을 기대했다. 수강해야 할 강의 수가 많고 학생마다 듣는 강의가 세분화된 만큼 강의 수의 확장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국제 사회가 풀어갈 숙제

지난달 15일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내무부가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에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일 미국이 아프간 철군을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정부 수립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향후 탈레반을 법적 정부로 인정

할 것인지에 대해 국제 사회에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아프간 정부의 항복으로 이어진 미군 철수△탈레반 정부 인정을 놓고 갈라진 국제 사회의 반응△국제 사회의 아프간 사태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 시도에 대해 알아보자.

◆아프간 정부의 항복으로 이어진 미군 철수

지난달 15일 아프간 정부가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조직 탈레반에 사실상 항복했다. 국토 대부분을 장악한 탈레반이 수도 카불 관문까지 진입해 정부 측에 투항을 요구하자 결국 정부는 정권 이양을 약속했다. 이날 압둘 사타르 미자왈 아프간 내무장관은 “더 이상 탈레반이 수도를 공격할 일은 없으므로 아프간 시민은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카불 함락 시점을 미군 철수 이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로 예상했다. 그러나 탈레반은 미군 철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점인 지난달 14일 북부 최대 도시이자 탈레반 거점 도시인 마자르-이-사리프와 수도 카불의 동쪽 방어벽인 잘랄라바드까지 점령했다. 15일엔 아프간 34개 주도 가운데 25곳을 함락한 상태였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미군 철수와 아프간 정부의 부패가 지적된다.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9·11 테러 사건의 배후인 오사마 빈 라덴(이하 빈 라덴)은 미국의 추적을 피해 당시 탈레반 집권하에 있던 아프간에 몸을 숨겼다. 미군은 탈레반에게 빈 라덴을 넘기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는 미국의 아프간 침공으로 이어졌다. 미군은 같은 해 10월 7일 아프간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12월 14일 탈레반 정권은 막을 내렸다. 미군은 탈레반 정부 대신 수립된 아프간 정부군을 지원하며 아프간에 주둔했으나 2011년 5월 빈 라덴이 사망하자 미군의 아프간 주둔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

또한 아프간 내 탈레반 축출과 친 서방 성향의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해 미국이 지난 20년간 약 2,600조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원했음에도 아프간 정부가 자립하지 못한 점도 지적된다. △아프간 대선 부정선거△정부군의 부패로 인한 잘못된 병력 통제△투명하지 않은 예산 내역 등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간 미군 철수 결정에 대해 “미국의 국익과 맞지 않는 분쟁에 계속 남아 싸우는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탈레반 정부 인정을 놓고 갈라진 국제 사회의 반응

한편 국제 사회에선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을 향후 합법 정부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친미 아프간 정부를 지원해왔던 서방 진영에선 탈레반을 공식 정부로 쉽게 인정해선 안 된단 입장이다. 지난 17일 유럽연합(EU)의 주제프 보레이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탈레반과의 대화 의사를 밝혔으나 해당 발표가 탈레반의 지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단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8일 국제통화기금(IMF)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의 국제통화기금 재원 이용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영국 언론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제 사회에선 아프간 정부를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엇갈린 상황이다”며 “미국의 요

청으로 아프간은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이나 국제통화기금의 다른 자원에 접근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은 아프간의 해외 자산도 동결했다. 아즈말 아흐마디 전 아프간중앙은행 총재에 따르면 아프간 중앙은행의 자산은 약 90억 달러(약 10조5천억 원)로 대부분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미국 연방준비제도△세계은행(World Bank) 등에 묶여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탈레반 정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레반을 ‘아프간의 새 정권’이라 표현하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탈레반이 아프간 발전에 중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아프간 평화와 재건에 건설적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탈레반을 향한 중국의 우호적 태도에 대해 앤드류 샬먼 아시아타임즈 기사는 “탈레반이 중국 내 무슬림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의 독립을 지원할 가능성이



▲아프간 탈출을 위해 카불 국제공항 비행기에 올라탄 시민들(출처: 뉴스1)

있어 중국은 현재 위기와 기회에 함께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프간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기에 중국의 외교 전략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다”고 전했다. 한편 1970년대 소련 시절 아프간을 침공했던 러시아는 좀 더 유보적인 자세를 드러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탈레반의 합법 정부 인정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다.

◆난민 문제가 대두된 아프간, 국제 사회의 인도주의적 접근은

탈레반이 수도를 장악하고 정권을 넘겨받은 후, 점령지에서 국한됐던 압제적 통치가 그대로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의 통신사인 AFP(Agence France-Presse)에 따르면 탈레반은 △미혼 여성이나 과부 등과 탈레반 조직원 사이의 강제 결혼 명령△아프간 정부 기관

에 근무한 민간인 살해△병력 확보를 위한 청년 강제 징집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선 이를 피해 국외로 떠나려는 ‘아프간 대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미국의 다목적 비영리 통신사 AP(Associated Press)는 “카불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엔 해외로 탈출하려는 인파가 물려들었다”며 “현지 항공사 항공편은 다음 주까지 예약이 꽉 찼다”고 설명했다. 로리 스투어트 전 영국 국제개발부 장관은 영국 공영 방송 BBC에서 “이제 아프간 상황은 인도주의적 재앙이 됐다”며 “고국을 떠나는 난민을 위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이탈리아와 독일에선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을 따라 아프간 침공에 함께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도덕적 의무와 책임감을 가져야 하단 지적을 내놨다.

지난달 18일 필리핀 정부는 아프간 난민을 기꺼이 받아들일것단 입장을 내놨다. 해리 로케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은 인권을 위협받고 고국을 떠난 개인에게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이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캐나다와 영국 또한 아프간 난민 수용 인원을 20,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지난 1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한 달간 피난을 떠난 아프간 어린이가 75,000여 명의 안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이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탈레반을 피해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가니스탄인 중 우리나라 정부에 협력한 현지인과 그 가족 390여 명이 우리나라에 군 수송기로 도착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같은 달 25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아프간 협력자는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다”며 “정부는 △유사한 입장에 처한 아프간인을 다른 나라로 대거 국내 이송한다는 점△국제적 위상△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등을 감안해 이들의 국내 수용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프로그램 선임연구위원 장지향 박사는 “우리나라에 협력했던 현지인 직원을 돕는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며 아프간 협력자 보호의 필요성을 전했다. 탈레반의 공포 정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프간 시민의 안전과 존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별인출권: 국제통화기금에서 출자없이 가맹국의 합의에 의해 발행총액을 결정하고 IMF에서의 출자할당액에 비례하여 배분되어 특별히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신수연 기자 02shinsoo@hufs.ac.kr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기록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이 지사)가 29.1%를 획득해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이 지사에게 1.7%포인트 뒤지는 27.4%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낙연 전 국무총리△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유승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었다.

사회 조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결정

지난달 24일,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문)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조민 씨의 의전문 입학 취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 게시글의 참여 인원은 지난달 31일 기준 34만 명을 돌파했다.

경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0.5% 낮아져, 이전 예측보다 저조한 수준

지난달 26일,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약 3년 전 예측했던 2.5%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2%를 기록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가 남긴 지속적 영향과 상충 효과를 최소화하고 앞으로의 경제구조 개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러시아 반체제 인사 나발니, “심리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 주장

블라디미르 푸틴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수감 중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갖고 “심리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며 “수용소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고 수감자 사이에 스파이를 심어 놓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재판에서 2014년에 사기 혐의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전환돼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나발니의 기본권을 존중해달라 요청했다.

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 방지의 충돌

지난달 1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개정안은 △기사 삭제 청구권△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정정 보도를 해당 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보도△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던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가운데 김민정 우리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를 만나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란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김민정 우리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Q1. 이번 개정안이 논란이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안들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신설(제17의 2)△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제17의 3)△정정 보도 시 형식 요건 강화(제15조)죠.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해요. 또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하고 세밀하게 규정되어야 하죠.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점이 미흡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Q2. 이번 개정안은 가짜뉴스의 방지와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법안 적용 대상엔 기성 언론사만 포함됐는데요. 그렇다면 가짜뉴스가 잦은 빈도로 생성, 배포되는 △SNS△유튜브△인 미디어는 어떻게 규제될 예정인가요?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은 △방송사△신문사△인터넷 신문△통신사 등 기성 언론입니다. 이번 언론중재법엔 기성 언론 외에서 발생한 온라인상의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민주당에선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정보통신망법(이하 망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상의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 2월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망법 개정안이 바로 그 일례죠.

Q3.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서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기준은 무엇이며, 불명확한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언론 보도에 명백한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항은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 자료를 조합해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하는 경우△정정·추후 보도가 있었지만 해당 기사를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 모두 표현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문제가 됐죠. 가령 언론이 의혹을 연속해서 보도한다면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하는 경우’에 해당돼 언론중재법에 저촉될 수 있어요. ‘정정 보도가 청구된 기사를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도 악용될 수 있죠. 언론 보도에서 부정부패로 지목된 이가 정정 보도 청구만 걸어도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1.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서 입증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증책임이란 무엇이며,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나요?

입증책임의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무죄추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는 무죄로 추정되고 검사는 피고가 유죄란 걸 입증해야 하죠.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 검사가 재판에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피고의 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는 무죄가 돼요. 달리 말해 피고는 자신이 무죄라는 걸 직접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 훨씬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누가 입증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에요. 우리나라 민법의 대원칙에 따르면 형사법에선 검사가, 민사법에선 소송을 한 원고가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원고 즉,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정안에 명시된 요건만 충족하면 언론사에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언론사가 이를 입증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입증책임의 전환이죠. 이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문제가 됩니다.

Q4.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따른 형사처벌 제도와 민사상 손해전보제도와 같은 언론 피해 구제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이중처벌의 문제나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되진 않나요?

이중처벌의 문제가 우려됩니다.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목적의 정당성△법익의 균형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이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번 법안은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피해를 구제한다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과연 이 법안을 통해 의도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무엇보다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을 위배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될 수 있어요.

Q5. 민주당은 비판 여론을 고려해 △고위공직자△대기업 간부△선출직 공무원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수정안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 권력과 자본에 대한 언론의 감시 보도를 보장할 수 있나요?

여전히 정치 권력과 자본에 대한 언론의 감시 및 비판 보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수정안에 포함된 공인의 범위가 좁게 규정됐기 때문이죠. 공인의 범위에 대부분 선출된 공직자를 포함해 기관장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만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공직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죠. 심지어 이 범위는 법원에서 기존에 인정한 공인의 범위보다 좁아 문제가 되고 있어요.

Q6. 미국도 언론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나요?

미국은 판례법 국가이고 명예훼손을 각 주에서 불법행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추가 조치는 맞지만 미국 전역에서 일괄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을 적시하는 것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요.

또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여섯 가지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중 입증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라고 불리는 기준이에요. 현실적 악의는 거짓임을 알고도 보도한 경우(knowledge of falsity) 또는 진실 여부를 무시하고 무작정 보도한 경우(reckless disregard for the truth)로 정의됩니다. 공인은 전보적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도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하고 이를 소송에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두 국가 간의 명예훼손 법리 체계가 확연히 다른 상황에서 미국도 허용하니 한국도 허용하자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Q7. 해외에선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많은 세계 언론인과 단체가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세계 최대 기자 조직인 국제기자연맹도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다”며 법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비판 성명을 발표한 바 있죠. 지난달 20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도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달 12일엔 세계신문협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사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어요.

Q8. 이번 개정안은 어떻게 보완돼야 할까요?

기사가 온라인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막는 조치인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신설과 정정 보도 시 형식 요건 강화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은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대신 법원에서 전보적 손해배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 개정안처럼 모호하고 기존 법리와 충돌하는 규정은 오히려 역효과만 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법안 전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보적 손해배상: 손해를 끼친 만큼만 배상을 하는 것



부조리의 인식에서 피워낸 꿈

고등학교 시절 교실이 참 답답했다. 선생님의 지루한 음성을 들으며 옆자리 친구가 뿔어낸 이산화탄소에 취해 몽롱한 정신으로 수업을 들곤 했다. 10분의 쉬는 시간이 찾아오면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이 가고 싶지 않아도 꼭 교실 밖으로 나갔다. 학교산책로를 거닐거나 친구들과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으면 10분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어김없이 수업 시간은 다시 찾아왔다.

마지막 자리에서 앉은 난 이내 상념에 잠겨 있었다. 한 번에 갇혀 같은 목표를 향해 욕구를 억누르며 노력하는 친구들.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잘하면 좋은 학생으로 분류되고 그렇지 못하면 소외되는 우리. 이를 부추기는 선생님과 공교육 시스템. 그리고 누군가 옳다고 정한 확립된 가치.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떠다녔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 대학이 인생의 전부인가. 우리 왜 누군가가 정한 가치를 따라가야 하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어느새 수업이 시작돼 있었다. 농친 부분의 필기를 친구에게 빌려 채워 넣을 생각을 하며 수업에 집중했다.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적 시스템에 반항할 용기는 없었고 나 역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다. 이런 내 욕망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정해준 가치를 그대로 따르고 싶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학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란 식으로 말하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의 말은 틀린 것 같다. 고등학교 친구 A는 누구나 꿈꾸는 대기업 입사를 위해 오늘도 여러 스펀더를 병행한다. 전문직의 꿈을 가진 친구 B는 고등학교 때처럼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한다. 이들보다 한 걸음 늦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난 가끔 고등학교 시절 교실에서 겪었던 답답함이 느껴진다. 어쩌면 이 답답함은 생을 살아가며 떼어낼 수 없는 종류의 느낌이라 생각한다. 답답함을 견딜 수 없을 땐 언제나 책을 폈다. 알베르 카뮈의 '부조리'란 개념은 내가 느끼는 답답함을 어렵잖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줬다. 인간은 삶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인간을 둘러싼 세계는 너무나 거대하고 부조리해 인간이 쫓으려는 의미와 언제나 충돌한다. 세계는 부조리란 구조로서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유한하고 미약한 인간은 언제나 반복적으로 패배한다. 책 '시지프스 신화' 속 담담한 이런 내용은 암울했지만 내가 어렵잖이 느꼈던 생각이나 감정을 누군가가 이미 언어로 정리해 놨다는 사실이 날 묘하게 위로했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목숨을 빼앗기는 자의 소식을 접할 때면 마음에서 울컥 올라오는 게 있었다.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린 젊은 노동자와 군내 성추행으로 자살한 군인의 뉴스를 접할 때가 그렇다. 사회와 집단 내 부조리가 구조로 자리잡게 되면 개인은 이에 대항하기 힘들어지고 비슷한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난 이 부조리가 싫어 기지만 꿈을 꾸다. 내가 사회의 구조를 바꿀 수 있던 허황된 꿈은 꾸지 않는다. 시지프스 신화 속 시지프스가 언덕 위로 돌을 굴리고 정상에 다다르면 다시 처음부터 돌을 굴리는 벌을 받는 것처럼 기 자로서 사회를 바꾸겠다던 시도는 대부분 실패할 것이다. 다만 시지프스가 자신에게 주어진 벌을 묵묵히 이행하는 것처럼 나도 기자로서 사회 속 존재하는 부조리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 그렇게 맡은 바를 수행하다 보면 세상이 바뀌진 않아도 조금은 나아지진 않을까.



정봉비 기자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책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했다'를 읽고] 지구 없이 살 순 없으니까

지구에서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플라스틱과 함께 살아오고 있다. 옷부터 칫솔까지 플라스틱의 입김이 닿지 않은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석유화학 물질로 만든 합성 소재인 플라스틱은 생산 가격이 싸고 튼튼하며 만들기 편리해 우리 삶에 풍부하게 공급된다. 그러나 플라스틱은 물에 쉽게 녹거나 썩지 않아 전 세계의 골칫거리가 됐다. 매년 바다에 매각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1980년 이후 단 한 번도 감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작가는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다룬 영화 '플라스틱 행성'을 보고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결심한다. 그는 다용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이용을 최소화하며 플라스틱 없는 삶을 이어간다. 물론 마트엔 포장용 비닐이 가득하며 유기농 야채도 신선함 유지를 명분으로 진공포장된다. 그러나 그녀는 이에 굴하지 않고 농장과 직거래를 하거나 보온병에 음료를 사담으며 삶의 방식을 바꿔나간다. 작가의 노력은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녀가 소속된 마을에선 장바구니가 활성화됐고 이내 이 장바구니는 오스트리아 전역으로 퍼진다.

우리 가족은 매주 일요일 아침 분리수거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서 스비닐△중이류스캔스패트병을 분류해 버린다. 난 분리수거를 하는 것만으로 환경을 지킨다는 생

각에 빠졌다. 하지만 분리수거 후 극히 적은 비율의 플라스틱만이 재활용되고 대부분은 태워지거나 바다에 버려진다. 우리가 썼던 플라스틱은 마시는 공기와 먹는 해산물로 우리 몸에 되돌아온다. 단순히 쓰고 분리해 버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용량 자체를 줄여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마스크를 포함한 플라스틱 폭증을 불러왔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택배량과 배달량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 이미 지구 전체에 가득 쌓인 플라스틱은 한계치에 도달했고 우리의 유일한 집이자 터전이 돼준 지구는 더 이상 대량의 플라스틱을 소화할 힘이 없다. 암울한 현 상황에서 이 같은 소비구조가 지속된다면 다가오는 큰 재앙을 보고도 자포자기하는 것과 다를 없다. 이번 해 지구는 스스로의 병을 가감 없이 내보냈다. 전 세계에서 나타난 온도 상승과 함께 북아메리카 대륙은 몇십 년 만에 찾아온 가뭄으로 수많은 농작물이 죽어 나갔다. 유럽에선 홍수와 강 범람으로 약 200명이 숨졌다. 환경이 그 무엇보다 다급한 문제가 된 지금 플라스틱 없이 사는 것과 지구 없이 사는 것,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기생충'을 보고] 또 다시 재현된 젠더 불평등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미국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의 블랙코미디 작품이다. 영화는 부유층과 극빈층으로 구분된 두 가족의 만남과 파국을 비극과 희극으로 그려냈다.

영화 기생충엔 4명으로 이뤄진 두 가족이 등장한다. △아버지 '기택' △어머니 '충숙' △아들 '기우' △딸 '기정'으로 구성된 김씨네 가족과 △아버지 '동익' △어머니 '연교' △딸 '다혜' △아들 '다송'으로 구성된 박사장네 가족이다. 반 지하에 사는 김씨네는 가족 모두가 일정한 소득이 없는 하류층이다. 반면 저택에 사는 박사장네는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상류층이다. 이처럼 두 가족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기우가 다혜의 영어과외를 맡게 되며 깊이 얽히기 시작한다. △기정은 다송의 미술 선생님이므로 △기택은 동익의 운전기사로 △충숙은 연교를 돕는 가사도우미로 줄줄이 위장 취업하게 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 박사장네 가사도우미였던 '문광'이 저택으로 찾아오고 김씨네는 저택 지하실에 숨어 살던 문광의 남편 '근세'의 실체를 알게 된다. 문광네 또한 김씨네의 위장 취업 사실을 알아차린다. 이후로부터 영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문광네와 김씨네가 서로의 약점을 쥐고 싸우던 도중 문광이 사망하게 된다. 다음 날 저택에서 열린 다송의 생일파티에선 근세가 기우의 머리를 수석으로 내리쥎고 기정을 죽인다. 충숙은 근세를 죽이고 기택은 동익을 죽인다. 이후 기택은 근세가 살았던 지하실로 숨고 기우와 충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일상을 살아간다. 시간이 지나 기우는 기택이 저택 지하실에서 보낸 모스부호를 해석하게 된다. 기우는 기택에게 자신이 훗날 그 저택을 매입할 테니 다시 만나잔 편지를 쓰는 것으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이 영화는 전 세계의 보편적 문제인 빈부격차를 미학적 완결을 통해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

러나 영화엔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성 인지 감수성이 녹아 있다. 영화에 등장한 가부장적 남성 인물과 이에 순응하는 여성 인물이 전통적인 젠더 불평등을 재현하고 강화했기 때문이다. 박사장네 집에 잠시 가사도우미가 부재했던 당시 동익은 기택에게 "이제 큰일 났죠. 아줌마 없으면 일주일만 지나 봐. 집안이 완전 쓰레기통 되죠. 다송이 엄마가 원래부터 집안일에 재능이 없어요."라고 말한다. 이 대사를 통해 여성이 집안일을 잘하지 못하면 비난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그려낸 것이다. 더 나아가 여성을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나타내기도 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지 못해 남동생을 질투하거나 기우에게 구애하는 다혜와, 남편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려는 연교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 사회와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여성을 표현한다. 여성의 신체를 다소 자극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점도 관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영화에선 여성 주인공인 기정이 신체를 노출하고 사위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단지 남성 관객의 흥미와 쾌락을 유발하기 위해 불필요한 노출이 가해지는 것이다. 영화 내 살해되는 여성에 대한 묘사도 비판의 대상으로 지적됐다. 봉준호 감독의 과거 작품에서도 여성 신체가 연출되는 방법은 논란이 된 바 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은 여성 신체를 관음하고 살인자에게 카메라의 시점을 부여했던 점에서 비난을 받았다. 영화 '마더'에서도 육상에 여성 주인공의 시체가 널려있는 연출이 등장한다. 기생충 또한 여성인 기정과 문광이 남성에게 의해 잔인하게 살해되는 장면이 연출된다. 남성 감독이 여성의 삶과 몸에 구조의 폭력을 새기고 그것이 누구에게나 잘 보이도록 스크린 위에 늘어놓았던 비판을 면할 순 없다. 스크린을 통한 여성의 타자화, 신체나 죽음에 대한 자극적 묘사가 아니라 섬세하고 예민한 여성성 묘사에 관한 고찰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임세은 기자 02seeun@hufs.ac.kr



외대학보 독자위원회를 모집합니다

2021년 2학기 동안 외대학보를 비평해 주실 독자위원을 모집합니다.

- ◆ **활동내역** 2021년 2학기 외대학보 1059~1064호 비평 후 비평문 작성 (총 5회, 개인 당 2회)
- ◆ **모집단위** 서울캠퍼스 3명/ 글로벌캠퍼스 3명
- ◆ **모집기간** 8월 31일(화)~9월 3일(금)까지
- ◆ **지원방법** 문자메시지 혹은 외대학보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름, 캠퍼스, 학과, 학번 제출
- ◆ **지원자격**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학교 구성원
- ◆ **활동혜택** - 비평문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독자위원회 토론 시 경비 지원
- ◆ **문의** 서울캠퍼스 신수연 기자 010-8744-7871/ 글로벌캠퍼스 박채빈 기자 010-9147-5298

독자위원이 써 주신 비평문은 매 호 외대학보에 실립니다. 학보도 꼼꼼히 읽고 사람들과 만나 토론하고 싶은 **지식인을 환영합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참된 언론인 배경록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

배경록(마인어·아시아77)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은 지난 35년간 △경인일보 기자△한겨레 사회부장△한겨레21 편집장△한겨레 상무이사△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 이사△씨네21·씨네플레이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이번 해 1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전문 언론인으로서 국민의 정보복지 향상과 한국 언론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배경록 동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우리학교 재학 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임대 전까진 학점보다 자유와 낭만을 만끽하는 생활에 몰입했고 복학 후엔 취업 준비로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죠. 그때 사회 참여 활동이나 교내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걸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어요.

Q2. 말레이·인도네시아어를 전공했음에도 언론인의 길을 택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언론인의 꿈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꾸기 시작했어요. 특수한 외국어를 하나 더 하면 기자 생활에 경쟁력이 있을 거 같은 생각에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에 지원하게 됐죠. 고등학생 시절 유명한 방송앵커였던 봉두완 씨가 쓴 '뉴스전망대'란 책을 우연히 읽게 됐는데 정의롭지 않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언론인 상이 매력적으로 다가와 언론인을 목표로 두게 됐습니다.

Q2-1. 기자 일을 하며 전공어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거의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자카르타나 쿠알라룸푸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 어디에도 특파원을 둔 언론사가 없었어요. 현장 기자 생활을 끝내고 편집장으로 일한지 한참 뒤에야 △연합뉴스△한국일보△KBS가 특파원을 보내기 시작했죠.

Q3.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본부장에 취임하셨는데 여러 언론사의 대표 자리에 계시다 언론진흥을 위한 공공기관에서 일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한겨레에서 정년을 마치고 언론계를 떠나 한신대학교 특임교수에 재직하던 중 언론진흥재단의 임원 공

모 절차에 지원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이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언론사와 언론인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인 것이 큰 매력으로 느껴졌어요. 언론인 출신으로 후배 언론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던 생각에 주저 없이 지원했고 한겨레에서 5년간 광고국장 겸 임원을 지낸 경력을 인정받아 온 좋게 합격하게 됐습니다.

Q3-1. 정부광고본부장으로서 매체나 언론사와 정부 광고 대상기관의 연결점에서 계시에 업무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광고주인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홍보가 광고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매체사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 및 행사 광고비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비용 절감에도 각별히 신중을 쓰고 있습니다.

Q4. △경인일보△한겨레△씨네21 등 다양한 계열의 언론사에서 기자와 대표이사로 활동하셨는데 언론인 생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1988년 한겨레 창간 초기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인사들을 고문해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의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경감을 찾아내 한겨레에 특종 보도하는 특별취재반에서 활동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수사기관의 반인륜적 고문 근절과 인권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기여했던 보람을 느꼈습니다.

Q4-1. 기자란 직업의 고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진실 추구의 어려움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기사의 원천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기사화하는 시점에서 진실에 얼마나 근접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 무척 고통을 느꼈습니다. 보도 이후 진실이라 믿었던 정보에 대해 반론이 제기되고 뒤늦게 취재의 완성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자책감이 들곤 했죠.

Q4-2.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 살아오면서 생긴 가치관이나 지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경청하는 자세를 갖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는 자칫 팬의 힘에 기대어 유아독존이 되기 쉽고, 취재원은 거만하고 아는 체하는 기자를 부정적으로 대하게 되죠. 취재원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정보를 하나라도 더 전달해 주겠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항상 예의를 갖춰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해요.

Q5. 과거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뉴미디어를 통해 언론을 접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언론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뉴미디어가 저널리즘의 영역에 진입한 지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매해 진행하는 언론수용자조사 결과를 보면 뉴미디어의 성장세가 무척 두드러져요. 이제 전통 매체들은 기존의 플랫폼에서 벗어나 새로운 플랫폼으로 무장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죠. 다양하고 질 높은 뉴미디어를 보유하는 게 언론사의 존폐 여부를 판가름하리라 생각합니다.

Q6. 현 시대에 대학생이 언론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조건적인 신뢰를 통해 스펀지처럼 여과 없이 뉴스를 소비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뉴미디어를 넘어 1인 매체까지 등장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가짜뉴스와 편파보도가 판을 치는 뉴스과잉 범람 시대를 맞고 있죠. △공익△공정△진실을 추구하는 뉴스를 선

별해 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Q7. 언론인으로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가요?

지난해 3월 한겨레를 퇴사하며 사실상 언론인으로서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은 언론진흥재단 임원으로서 언론계를 위해 봉사하고 있어요. 재단 임원으로 봉직하며 훌륭한 후배 언론인이 많이 배출되고 여론의 다양성과 지역의 풀뿌리 언론들이 자생력을 갖춰나가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Q8. 마지막으로 언론인을 꿈꾸는 재학생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언론사 취업의 문턱을 넘는 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기사를 꿈꾼다면 몇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끊임없이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맹목적으로 규모가 큰 언론사만 고집하는 것보다 본인이 지향하는 저널리즘의 방향성과 잘 부합하는 언론사를 선별해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경력 기자의 언론사 간 전직이 활발한 만큼 비록 소규모 언론사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하더라도 좋은 기자로 성장한다면 원하는 언론사로 이직할 기회도 많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